

# 한방 과학화는 의미없는 소모적 논쟁



채한 박사의  
American  
Report 6

## ■ 한의학은 과학인가?

한의학이 과학인가, 혹은 과학화가 필요한가는 새삼스러운 주제가 아닙니다. 한약분쟁을 통해 수면위로 드러나게 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한의학을 둘러싼 논쟁(註1)에 빠지지 않았던 주제입니다.

한의학과 과학에 대한 논쟁에는 지금까지 대략 두가지 논리가 있어왔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한의학은 과학이 아닌 미신이나 잡술로, 높이 평가한다고 해봐야 단편의 약물 지식과 대중요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20세기 초 서양문물이 유입된 이후, 모든 전통지식 체계에 가해진 서구 침략주의 혹은 자기 비하에서 시작된 것으로, 21세기에 들어선 지금까지 수많은 전통 지식 체계에 가해지는 가혹한 가치 폄하였습니다.

밥을 포크로 먹는 것은 좋은 것이고,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전통 방식은 모두 버려야 한다는 논리였지요.

개화기 혹은 해방 이후의 서구 문물에 대한 '과학 콤플렉스'에 기반한 이러한 논법은, 수십년간 한국 정치사에서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빨갱이' 논법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모든 학문적 토론이나 객관적 연구는 건전한 토론과 평가를 거치기 이전에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수많은 전통 기술과 고유문화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박해와 말살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학문이 한의학임을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의학이 이렇게 살아남아 부활의 날개를 펼침은 그 의학적 존재 가치가 단순한 가치 폄하와 박해로는 감추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과학의 나라 미국 NIH의 연구비와 연구인력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에 대한 한의계의 반박 논리로서, 한의학은 현대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수많은 임상 증례로만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한의학은 과학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현대과학과 서양의학에 의한 한의학의 증명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자연의 도(道)'인 음양오행(陰陽五行)과 경락(經絡)을 이해조차 하지 못하며, 수십 년간의 화학분석으로도 인삼의 모든 효능을 밝혀 내지 못함을 볼 때 한의학 처방을 설명하기에도 너무도 낮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은 수준으로 높은 수준의 학문을 평가함은 어불성설이며, 한의학의 그 무엇을 증명하거나 작용 기전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위 과학적 접근은 무의미한 것이며, 다만 치료 효과(임상례)의 통계적 입증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대 과학계는 Nature에 실렸던 논문(註2)의 통계 분석 자체도 한순간 부정되는, 한마디로 '통계도 믿을 바 못되는 현실'입니다.

안개 속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가지만으로도 기동과 뿌리를 가늠한다는 것은 학문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니며, 학문의 근본 이론과 실제적인 활용에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야 함은 한의학의 자존심에 대한 모욕이라 생각됩니다.

Mechanism이 빠진 단순 '효과 검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천 종에 이르는 처방과 침구법, 수기법의 효과를 일일이 검증한다고 하여 학문에 어떤 이론적 기여가 있을 것이며, 백보양

보하더라도 검증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한의 처방의 효과를 검증하여 유효성분을 추출해내면, 이미 한의학과는 상관없는 서양의학이 되어버리는 현실입니다. 한국 한의학의, 한의학을 위한, 한의학만의 구체적인 그 무엇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연구는 한순간 스쳐가는 바람에 그칠 뿐입니다.

냉정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해묵은 논쟁은 '과학(science)'이라 불리웠던 신기술에 대한 100년 묵은 콤플렉스 속에서 '한의학 ≠ 과학'이라는 무의미한 영가설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만을 이끌어 왔을 뿐입니다(註3).

현실적으로 수능점수 상위 1%의 수험생만이 한의과대학을 지망할 수 있고, 국민 의료 보험이라는 국가 행위의 일부이면서, 수많은 소위 '과학자'들이 한의학 연구를 통해 국가 연구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 수많은 한의사들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통해 국가 제도속에서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의학만을 위해 국가가 설립한 연구기관이 존재함은 '한의학은 과학인가'라는 논쟁이 이미 무의미함을 뜻합니다.

과연 미신에 불과하거나 혹은 단순 대중 요법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국가 행위의 일부로 이만큼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한의학이 신뢰할 만한 학문'인 것은 이미 인정된 셈입니다. 아니라면, 왜 대한민국의 공중보건의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한의학/한약'이라는 잡술'에 집착하는 양방 의약업계의 자성에 찬 소리를 찾아볼 수 없는지 반문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양은 어떻고, 과학 강국인 미국은 어떻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는 지성인이자라면, 정치적(politics)인 의미를 배제한 'Science가 아닌 한의학을 Science로 만든다'는 '과학화'라는 콩글리쉬(broken English)는 존재하지 않음을 이해할 것

입니다(註4).

과학이 아닌 것을 어떻게 과학으로 만든다는 것인가요. 과학(Science)이란 학문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과, T. S. Kuhn의 과학철학적 접근은 차치하고라도 말입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 지금까지의 '한방 과학화'란 상업주의를 전제로 한 속빈 강정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한방 과학화'를 주창한 사람들치고 경제적 이득을 외면하면서 한의학 연구에만 목숨걸었던 사람을 본 적 없습니다. 여타 의료 단체에서는 '한방 과학화'를 본인들이 하겠다지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혹은 왜 그들만이 할 수 있는지 진짜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의학을 수십년간 고민하셨던 선배님들도 자신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왜 무지한 그들이 자신있게 이야기 하는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까지의 소모전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 제삼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 ■ 한국 한의학은

### 과학(Medical Science)이다!

한국 한의학은 과학(Medical Science)입니다. 한국 한의학은 서양의학과 학문적 체계와 사용 언어가 다를 뿐, 신뢰할만한 학문이며, '질병에서의 인간 해방'을 지향한다는 공통분모에 입각해 있습니다. 상대방을 꺾고 흡수하여 내 것을 늘린다는 19세기적 제국주의 사고, 전근대적인 과학 콤플렉스에서 우리가 먼저 벗어나야 합니다.

근거조차 모호한 기계나 검사법, 장돌뱅이 박람회, 유전공학, 파동, EBM, 대체의학, Well-being 같은 fancy한 용어에 대한 강박적 집착을 떨쳐야 합니다.

자기만족에 그치는, 알맹이 놓아두고 이름만 바꿔 뭐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너무 다른 역사적 배경속에서 서로를